

자본주의사회에서 금융의 공동화현상과 그 후과

남 석 춘

오늘 자본주의세계는 류레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항시적으로 침체와 하강상태에 빠져있으며 통화팽창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실업이 증대되고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신용공간에도 영향을 주고있으며 그로 하여 자본주의금융계는 지속적인 혼란상태에서 허덕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현대제국주의는 격화되는 모순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77페이지)

자본주의금융경제하에서 금융계의 혼란상은 금융의 공동화현상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

금융의 공동화는 일반적으로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원천이 부족한 현상을 말한다.

금융의 공동화는 원리적으로 보면 금융공간이 사회적자본의 순환과정과 점차 분리되어나가는 과정에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다.

원래 금융공간은 사회적자본의 순환과정에 생겨났으며 그 과정에 종사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하는데 따라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충족시킬수 없게 되었으며 상품운동과 화폐운동사이에는 서로 배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점차 우심해져 더는 해결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 금융자본이 상품운동과 동떨어져 일방적인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의 공동화현상이 생겨날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게 되었다.

금융의 공동화는 금융이 재생산과정에 복무하는것보다 그와 유리된 가치증식, 화폐증식운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이다.

금융의 공동화는 20세기 후반기 금융자본의 변화과정을 반영한 경제현상이다. 그것은 이 경제현상이 20세기 후반기에 금융자본이 급격히 팽창되면서 나타난 일련의 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생겨났기때문이다.

산업의 공동화는 금융의 공동화를 산생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산업의 공동화문제는 일찍부터 다국적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외직접투자에 따르는 국내산업의 쇠퇴와 관련하여 경제정책상의 문제로 크게 제기되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다국적기업체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비생산분야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와 함께 독점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이 확대되면서 산업공동화현상은 더욱 증대되었다.

산업공동화현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난 자본주의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의 급격한 증대는 금융적봉사를 제공하는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자극하였다. 이처럼 산업의 공동화는

다국적은행들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금융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

금융의 공동화를 세계적범위로 파급시킨 기초적조건은 금융의 자유화, 증권화, 국제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금융혁신》이다.

산업의 공동화가 금융의 공동화를 산생시킨 중요한 계기이라면 《금융혁신》은 금융의 공동화를 세계적범위로 파급시킨 기초적조건으로 된다.

금융의 공동화는 금융분야에서 일어난 경제현상인것만큼 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생기는 경제현상이다. 금융거래전반에서의 변화가 없이 금융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날수 없다.

《금융혁신》이 추진되어 금융의 자유화가 실현되어야 자본의 자유이동이 담보되고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이 강화될수 있으며 금융의 증권화가 추진되어야 기업체들의 재무관리에서 설비투자와 함께 유가증권투자가 늘어날수 있으며 금융의 국제화가 보장되어야 자본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대될수 있다.

금융의 공동화현상은 《금융혁신》이 전개되던 1980~1990년대에 세계적범위에서 급속히 파급되었다.

《금융혁신》이 금융의 공동화를 세계적으로 파급시킨 기초적조건으로 된것은 그것이 금융방식에서의 변화를 초래한것과 관련된다.

금융방식은 고정불변할수 없으며 객관적경제형편이 달라지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동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오래동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방식이 지배적이였다.

산업자본주의단계에서 금융계는 은행기관의 활동을 위주로 하여 형성되어있었다.

봉건사회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금융업의 담당자, 금융기관은 은행이였다. 은행이 생겨나면서 기능자본운동에 요구되는 자금이 은행업을 통하여 충족되게 되었다. 은행기관들은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형성되는 유희화폐자금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그 자금으로 추가적화폐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대가로 리자소득을 취득하였다. 기능자본가들이 은행기관을 통하여 추가적화폐수요를 충족시킬 때에 형성되는 거래관계를 반영하는 금융방식이 바로 간접금융방식이다.

간접금융방식은 유희화폐자본의 동원과 운용을 은행을 통하여 전개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경제관계를 반영한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 은행이 유희화폐자본의 현실적인계안에서만 업무활동을 진행하여서는 급속히 확대되는 추가자본에 대한 기능자본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었으며 기능자본가들도 사회적재생산과정에서 형성된 유희화폐자금의 일정한 한계안에서만 자본운동을 전개하여서는 날로 격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날수 없었다. 자본운동의 이러한 변천된 실태를 반영하여 세상에는 의제자본형태의 유가증권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운동이 금융계를 휩쓸었다. 결국 경제활동과정에는 수많은 신용적류통수단들이 류통되고 그 기초 위에서 증권류통이 금융계를 뒤덮게 되었다.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서면서 금융자본의 운동영역이 비상이 확대되고 의제자본의 작용도 급격히 강화되었다. 주식, 채권과 같은 의제자본형태의 금융자산이 날로 늘어나고 기능자본가들의 수중에서도 과잉화폐자본축적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간접금융과 다른 금융방식인 직접금융방식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다.

직접금융에서는 기업체나 공적기관들이 발행하는 주식, 공사채들이 금융활동의 기본공

간으로 되며 이러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이 금융자본가들이나 기능자본가들의 리윤추구의 주요원천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금융방식의 직접적담당자들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들이며 유가증권의 발행자들인 기업체들과 공적기관들은 자금수요자로서의 역할을 논다.

직접금융방식은 20세기 후반기 금융의 증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간접금융방식과 함께 자본주의 금융방식의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금융혁신》을 통하여 강행된 금융의 증권화는 금융계에서 증권시장의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비상이 높였으며 나아가서 직접금융방식의 기초적조건을 성숙시켜 그의 전례없는 확대를 가져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간접금융방식의 담당자와 직접금융방식의 담당자들 사이에 업무적침투가 강화됨으로써 이 두 금융방식상의 차이는 점차 없어지고있다.

현시기 금융의 공동화현상은 자본주의 금융계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쳐 자본주의 경제를 파국적인 위기로 몰아가고있다.

금융의 공동화는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금융활동의 기형성을 격화시키고있다.

금융의 공동화는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배리로 하여 일어난것만큼 사회경제생산과 유리된 금융업무가 금융계에 침투해들어오면서 기형적인 금융활동이 널리 전개되고있다.

금융의 공동화로 하여 나타난 기형적인 금융활동은 우선 간접금융분야에서 은행아닌 은행인 류사은행들의 활동이 널리 퍼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류사은행의 출현은 금융계를 혼란속에 몰아넣는다.

오늘날 류사은행으로 불리우는 금융기관은 보통의 대부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결제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은행 또는 자금을 모아가지고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한해서만 운용하는 금융업체를 말한다.

일부 은행들속에서는 예금을 대출에 돌리지 않고 국채를 사는데 충당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스스로 자기의 업무활동을 축소시켜 류사은행으로 된다.

현시기 자본주의 금융계에서는 업종에 구애되지 않고 리자를차액만을 얻을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업무활동을 바꾸는 류사은행들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금융의 공동화로 하여 나타난 기형적인 금융활동은 또한 증권투자활동이 날로 늘어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금융의 증권화가 실현되고 금융공동화가 다그쳐진 결과 자본주의사회에서 주민들은 자기 수중의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저금소들에 저축하는것보다 그 어디인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의 묘술을 찾고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투자의 묘리를 배워주는 투자그룹들이 생겨나고있다. 투자그룹에서 투자방법을 배운 개인투자자들은 흔히 투자신탁기금이나 각종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증권투자활동을 강화하고있다. 이들뿐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방대한 규모의 증권투자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 금융계에서는 기업투자활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증권투자활동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나고있다.

금융의 공동화는 다음으로 금융계에 투기성을 극도로 만연시키고있다.

투기는 자본주의경제의 부착물이며 경제활동에서 투기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금융계

이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많은 부분이 유가증권투자에 집중되어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유가증권은 경제적투기에 가장 알맞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의 공동화는 유가증권투자가 늘어난 결과에 생겨난 경제현상인 동시에 증권투자를 촉진시키는 촉매적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의 공동화가 추진되면 자금의 동원과 운용이 더욱더 증권시장에 집중되어 재생산과 탈락된 자금순환량이 급격히 확대된다. 이 과정에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물질적담보성이 매우 적은 금융자산들이 생겨나며 그것은 경제적투기를 위한 중요한 기초로 된다.

의제자본을 대표하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경제적투기의 중요대상으로 되고있으며 특히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중요수단으로 되고있다.

지금 금융의 공동화는 금융의 증권화와 어울려 금융시장의 투기화의 둘도 없는 공간으로 되고있다.

금융의 증권화의 흐름속에 나타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은 기본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그 변동요인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예측대상으로 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투기적금융자본은 파생금융상품을 중요한 거래수단으로 보고 파생금융상품거래과정에서의 폭리를 얻기 위하여 투기거래를 일삼는다. 실제로 2008~2009년 금융위기는 기생적금융자본들이 파생금융상품을 리용하여 벌린 투기적금융거래의 결과 산생된 위기현상이었다.

금융의 공동화는 다음으로 국제적범위에서 금융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금융의 공동화현상은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과정을 통하여 심화된다. 투자국에서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상업은행투자이거나 증권투자나 같은 다른 나라에로의 금융자본의 이전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금융자본의 해외이전이 늘어날수록 해당 나라(투자국)에서 금융의 공동화현상은 심화되게 된다.

오늘날 금융의 공동화에 편승하여 진행되는 수많은 금융자본의 해외진출은 제국주의자들이 즐겨쓰는 신식민주의적수탈의 중요공간으로 되고있다.

금융의 공동화현상은 금융자본이 해외침투에로 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으며 산업공동화의 결과로 생겨난 다국적은행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외에 침투된 금융자본은 더 많은 리윤을 노리고 투기적인 금융활동을 벌림으로써 해당 나라의 금융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조성하고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다.

우리는 금융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자본주의경제제도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금융의 공동화, 《금융혁신》